

# 10명중 7명 현직...신인 진입 장벽 여전히 높았다

## 광주·전남 동시조합장선거 결과 분석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우려했던 대로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임에 도전한 광주·전남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이 높아 현직에게 유리한 구조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조차 없어 신인에게 불리, 불법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 조합장 강세-여전히 '현직 프리미엄' = 13일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개표를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는 16개 농협 중 10곳과 1개 산림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다시 당선됐다.

유일한 수험인 민물장어양식수협 선거에는 조합장이 공식 상대에서 출마할 수 없었다.

선거에 참여한 18개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연임에 도전한 조합은 모두 15곳으로 출마자 기준 당선율이 73.3%에 달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무투표 당선됐다.

또 전체 18개 조합 중 11개(61.11%)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깜깜이 선거'로 현직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았다.

전남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은 145개 농협, 19개 수협, 21개 산림조합 등 185개 조합 중 현직 조합장 출마자는 총 1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현직 조합장은 97명(무투표 29명)으로 출마자 기준 당선율은 68.79%를 기록했다.

특히, 185개 조합 중 절반(52.43%)이 넘는 97개 조합에서 현직을 선출, 여전히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

선거운동 기간 13일에 불과

연설회도 없는 '깜깜이 선거'

현직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광주 20건 전남 76건 위법 적발

석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 선거제도 개선 필요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폭이 지나치게 좁아 새 얼굴의 후보가 조합장이 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선거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합장 선거는 공식선거법이 아닌 위탁 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 운동 기간은 단 13일뿐이다. 또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정책 대담이나 연설회 및 토론회도 불가능하다.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 기회가 없다 보니 신인에게 불리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문에 조직에 의한 선거와 조합원 직접 대면하는 선거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조합장이 아니고서는 주요 선거운동 수단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필요한 조합원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농협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이 되면 3선 제한에 걸리지 않고 영구 연임도 가능해 신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품 등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등 불·탈법이 근절되지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청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않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0건, 전남에서는 76건 등 96건의 위법사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와 관내 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 등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2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6명을 기소(2명 구속)하고 3명은 불기소했으며 63명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운동주체를 후보자의 1인을 추가하는 것과 후보자 범죄경력 기재, 후보자에게 전화번호 제공,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개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직에게 유리한 조합장 선거 제도가 자칫 불·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민들 직접 조례안 만들어 의회에 상정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의장에 부여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자체 자율성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합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직접참여제도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명시된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조례는 지자체나 지방의원들이 발의해왔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주민들도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자율성도 크게 확대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이끄는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이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색 조합장 당선자

이번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이색적인 당선자들도 나왔다

특히 1988년 조합장 직선제 시행 이후 31년 만에 광주·전남 첫 여성 조합장이 당선돼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에서 풍양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박미화 당선인은 686표(50.92%)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고흥군 풍양농협 남부지점장 출신인 그는 풍양농협 상무를 지낸 김승주, 신여준 후보와 고흥군 산림조합 감사 출신 조양우 후보 등 경쟁한 남성 후보들을 제치고 지역 최초 여성조합장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에서 출마한 후보 497명 중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이밖에 3연속 무투표로 조합장에 선출된 당선자들도 있다. 조합의 살림을 이끌

## 풍양농협 박미화 당선자, 후보자 497명 중 유일한 여성 정남진 강경일·보성농협 문병완, 3선 내리 무투표 당선



박미화

강경일

문병완

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된 후 2015년 1회 선거 때도 무투표 당선됐다.

강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결산과정에 18억원 상당의 최대순이익 실적 올려 4000여 조합원에게 14억6000만원 상당의 출자와 이용고배당을

2001년 6월 보성농협 조합장으로 취임

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탓에 경쟁상대가 없었다는 게 농협 안팎의 분석이다.

장흥정남진농협 강경일 당선자는 초선부터 3선까지 내리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다. 지난 2012년 2월 선거에서 단

했다 문병완 당선인도 이번 선거를 통해 3연속 무투표 당선 기록에 동참했다.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는 농업경영비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10여 년전부터 벼 직파재배 기술을 도입, 지난해 600여농가 1억 5500만원의 경영비 절감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여기에 2016년 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받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조합원들의 지지도가 높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